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7월 2주~7월 3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 캐나다·러시아, 주재국 원자력 발전소 개발 참여 제안¹⁾(Antara, 6/24)
 - 에너지광물자원부 Bahlil Lahadalia 장관은 캐나다와 러시아가 주재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 외에도 제안을 한 몇몇 국가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힘.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4년까지 총 500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이며,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에 각각 250MW씩 배치할 예정임. 해당 부지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이 적용될 계획임.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임
 - 우라늄 가공 및 방사성 자원 개발과 관련해, 에너지광물자원부 Yuliot Tanjung 차관은 정부가 우라늄 정제와 방사성 자원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 중이며, 관련 사업 허가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함. 우라늄은 핵반응로의 주요 연료로, 주재국에서는 서칼리만탄 멜라위(Melawi) 지역에 약 24,112t의 매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FS)와 정부의 정책적 규정 수립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임
- 중동 긴장 고조 속에서도 주재국 외국인직접투자 지속 유지²⁾(Antara, 6/24)
 - 주재국 투자청(BKPM) Rosan Roeslani 장관은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재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Rosan 장관은 투자자들의 투자 의향이 변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함

- Rosan 장관에 따르면, 현재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은 여전히 강한 투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Rosan 장관은 이 같은 이유로, 중동의 긴장이 주재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6개월 동안 주재국의 외국인 투자 흐름이 긍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Danantara-PGE, 3GW 지열발전 확대 위한 전략적 협약 체결 예정³⁾(IBP, 6/25)
 - 국부펀드 Danantara는 국영 에너지기업 PT Pertamina Geothermal Energy(PGE)와 함께, 총 3GW 규모의 지열발전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 협력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HoA 및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음. 본 협약은 주재국 전력공급계획(RUPTL) 2025-2034 내 지열 프로젝트 편입과 투자 가속화를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 Danantara Rosan Roeslani CEO는 PGE 이사회와의 전략회의 이후 이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번 협력이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하류산업 촉진, 녹색경제 성장의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현재 PGE는 총 1,877.5MW의 지열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672.5MW는 자가 운영, 1,205MW는 공동운영계약(JOC) 형태임. 2024년에는 Kamojang(+5.36%), Lahendong(+0.40%), Lumut Balai(+2.72%) 등 주요 지역의 실적에 힘입어 전력 생산량이 1.96% 증가한 4,827.22GWh를 기록함

1) <https://en.antaranews.com/news/361721/canada-russia-keen-to-build-nuclear-plants-in-indonesia-govt>
2) <https://www.antaranews.com/berita/4921673/rosan-sebut-investasi-di-ri-tetap-tinggi-saat-eskalasi-iran-israel>

3) <https://indonesiabusinesspost.com/4598/energy-and-resources/danantara-pge-to-sign-strategic-agreements-for-3-gw-geothermal-expansion>

- 해당 전력은 200만 가구 이상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며, 연간 약 970만t 의 CO₂ 배출 저감 효과를 창출함. PGE는 향후 2년 내 자가 운영 설비를 1GW까지 확대하고, 2033년까지 1.7GW로 늘릴 계획임. 이를 위해 생산 확대, 신규 탐사, 지열광구 개발을 추진 중이며, Lumut Balai 2호기 프로젝트는 연내 가동 예정임.

○ Pertamina NRE, 주재국 원전 개발 참여 의사 표명4)(Antara, 6/30)

- 2025년 6월 29일, 서자바 카라왕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 착공식 이후, 국영 에너지기업 Pertamina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Pertamina NRE John Anis CEO는 주재국 원자력 발전소(NPP) 개발 참여 의향을 밝힘. 그는 정부가 2034년까지 총 500MW 규모의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ertamina NRE는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기업으로서 이에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John Anis CEO는 Pertamina NRE가 향후 PLN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현재는 기술, 입지, 에너지원에 대한 사전 조사와 더불어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조사 대상 국가는 러시아, 중국,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임
- 에너지광물자원부 Bahlil Lahadalia 장관은 이미 총 500MW 규모의 원전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었으며, 이 중 250MW는 수마트라, 나머지는 칼리만탄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주재국 정부는 이번 원자력 개발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적용할 계획임

○ 프라보워 대통령, 5~6년 내 에너지 자립 가능성 언급5)(Antara, 6/30)

-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 서부 자바 카라왕(Karawang)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 착공식 이후, 주재국이 향후 5~6년 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밝힘. 그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본인의 계산을 근거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 에너지 독립의 핵심 요소로 태양광 에너지와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함

- 프라보워는 카라왕에서 생산될 배터리 기술이 태양광 에너지의 저장 및 분배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시설의 발전 용량은 15GW 수준이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약 100GW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이에 따라 유사 프로젝트의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주재국-사우디아라비아, 270억 USD 규모 에너지·산업 협력 MOU 체결6)(TRT global, 7/3)

- 주재국 프라보워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양국 민간기업 간 약 270억 USD 규모의 투자협정 및 MoU가 체결되었음. 협약은 청정에너지, 석유화학 산업, 항공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함
-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이스라엘의 민간인에 대한 봉쇄와 강제이주를 비판하며, 1967년 국경선과 동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함
- 또한 시리아와 관련하여, 양국은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세 개입과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공습

4) <https://en.antaranews.com/news/362829/pertamina-nre-interested-in-indonesias-nuclear-power-development>

5) <https://en.antaranews.com/news/362729/energy-self-sufficiency-to-be-achieved-in-six-years-prabowo-declares>

6) <https://trt.global/world/article/73e432304e7>

을 비판함. 서방 제재 해제를 환영하며, 시리아 재건과 난민 귀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

○ AlQilaa, 주재국 3백만 주택 사업 참여 위해 10만 세대 건설 추진⁷⁾
(Bisnis, 6/30)

- 카타르 AlQilaa International Group은 주재국 정부의 '3백만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약 40.54조 Rp (25억 USD, 환율 기준 Rp16,217)의 초기 투자를 약속하였음. 본 계획은 2025년 6월 26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출범되었으며, 향후 1~2개월 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고층 저렴 주택 10만 세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임
- 프로젝트 1단계에서는 자카르타를 포함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 및 비보조 고층 주택이 혼합 공급될 예정임. AlQilaa 회장 Sheikh Abdulaziz bin Abdulrahman Al Thani는 본 사업이 주재국의 중·저소득층 국민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을 강조하였음
- 주택금융은 국영은행인 PT Bank Tabungan Negara (Persero) Tbk.(BBTN)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BTN은 일반 모기지(KPR) 및 이슬람 금융(KPR Syariah) 상품을 통해 10만 세대 공급을 위한 금융을 지원할 계획임. BTN 사장 Nixon LP Napitupulu는 AlQilaa 프로젝트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며 금융 지원 의지를 밝힘

○ 주재국-영국 청정에너지 협력 프로그램 MENTARI 종료, 총 2,100억 Rp 투자 유치⁸⁾(Tempo, 7/3)

- 영국과 주재국 간 청정에너지 협력 프로그램인 MENTARI(주재국

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프로그램)가 2020년 시작 이후 약 5년 만에 종료됨. 본 프로그램은 농촌 전기화, 소수력 발전소 설치, 태양광 정책 연구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EBT) 프로젝트에 총 2,100억 Rp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 MENTARI의 주요 성과로는 태양광 및 배터리 산업을 대상으로 한국산 부품 비율(TKDN) 연구 수행이 있으며, 규제 개선, 산업 인센티브 확대, 기술 도입, 인허가 간소화 등을 권고함. 또한, VGF(Viability Gap Fund) 방식으로 210억 루피아의 보조금을 집행하여 롬복, 발리, 서수마트라에 총 7.1MW 규모의 소수력 발전소 3기를 건설함. 이와 함께 누사땡가라 동부 숲바섬의 2개 마을에는 95kWp 규모의 미니그리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여, 전기 미공급 지역의 238가구, 공공시설 및 16개 마이크로 비즈니스에 전력을 공급함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Dadan Kusdiana 사무총장은 정부가 MENTARI 프로그램의 2단계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며, MENTARI의 성과를 활용해 동부 지역 전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MENTARI 2단계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언급함

○ 교통부, 국가교통체계 법안 조속 제정 추진⁹⁾(Tempo, 7/3)

- 인프라 및 지역개발조정부 Agus Harimurti Yudhoyono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통체계의 통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통체계 법안(RUU Sistranas)의 조속한 제정을 강조하였음. 동 법안은 교통 시스템 기획의 법적 기반이 될 것이며, 교통수단 간 및 지역 간의 통합적 계획과 관리를 가능케 할 것이라 언급함
- 해당 추진은 Prabowo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AHY 장관은

7) <https://www.tempo.co/ekonomi/bank-dunia-berkunjung-ke-ikn-untuk-apa--1673329>

8) <https://en.tempo.co/read/2024251/five-years-on-indonesia-uk-energy-partnership-draws-rp210-billion-in-investment>

9) <https://en.tempo.co/read/2024251/five-years-on-indonesia-uk-energy-partnership-draws-rp210-billion-in-investment>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교통체계 구축이 IMF의 2020~2030년 GDP 구매력 기준 세계 7대 경제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함. 특히 자바 지역은 국가 경제성장의 중심지로서 교통 인프라 개선의 우선순위로 지목됨

- 이와 함께 AHY 장관은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정부령 초안(RPP) 마련도 촉구하였으며, 이는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의 기준이 될 예정임

○ 2백만 호 주택 개보수 위해 43.6조 Rp 예산 편성¹⁰⁾(Bisnis, 7/6)

- 주택 및 정착지역부(PKP) Fahri Hamzah 차관은 정부가 거주 불가능 주택(RTLH) 개보수를 위해 총 43.6조 Rp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025년 7월 6일 공식 발표함. 이 사업은 자가건축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BSPS)을 통해 시행되며, 수혜자 1인당 2,180만 Rp가 지원되어 건축 자재 구입 및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임. Fahri 차관은 올해 국가예산(APBN)을 통한 BSPS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언급함
- Fahri 차관은 현재까지 연간 개보수 가능 물량은 최대 14만 호 또는 약 3.05조 Rp였지만, 이번에는 2백만 호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위해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연간 3백만 호 주택 건설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 내 수직주택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도 병행하고 있음
- 정부는 민관협력(PPP) 방식 적용과 함께 토지 정책, 구매확약자(off-taker)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국가 개입을 병행할 예정이며, 해안 지역에는 종합 정착지 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 신수도청 CPNS 574명 입주 및 조직 역량 강화 추진¹¹⁾(Kompas, 7/7)

- 2025년 7월 3일, 신수도청(OIKN) 소속 국가공무원후보자(CPNS) 574명이 신수도 정부핵심업무지구(KIPP) 내 국가공무원(ASN) 아파트 1호 및 3호에 입주함. 이들은 7월 4일 Kemenko 3청사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였으며, 각 조직 단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층 소개를 받음. 이번 입주는 공무원 주거 생태계 정비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 근무환경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신수도청장 Basuki Hadimuljono는 신입 공무원들에게 조직의 일원으로서 강인함, 협력, 창의성을 강조하며, 이들이 부패·연줄 없는 투명한 조직 문화를 견인할 핵심 인력임을 강조함. 또한 신수도청은 단순한 관료 조직이 아니라 헌신과 자기계발, 협업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조직이어야 함을 밝힘
- 2025년 6월 기준, 신수도청 소속 직원 수는 총 1,170명에 도달하였으며, 이번 CPNS의 현장 배치로 KIPP 내 신수도청 본청과 제3 조정부처(Kemenko 3)청사 등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임

○ 인프라 및 지역개발조정부, 초대형 인프라사업 관리를 위한 2026년 예산 2,002억 Rp 추가 요청¹²⁾(Bisnis, 7/8)

- 인프라 및 지역개발조정부 Agus Harimurti Yudhoyono 장관은 거대방파제(Giant Sea Wall) 및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프로젝트 등 초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예산 2,002억 Rp의 추가 편성을 요청했음. 현재 책정된 2026년도 예산은 1,157억 Rp로, 모든 사업 활동 수행에는 부족하다는 설명임

10)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706/47/1880813/pemerintah-siapkan-rp436-triliun-untuk-renovasi-2-juta-rumah>

11) <https://kn.kompas.com/read/2025/07/07/094751837/resmi-574-cpns-otorita-ikon-pindah-ke-rusun-asn>

1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708/45/1891306/ahy-usul-tambahan-anggaran-rp200-miliar-untuk-kawal-2-megaprojek-prabowo>

- 요청된 추가 예산은 △지역·토지·공간계획 분야의 균형발전 조정 △교통연계성 부문 지원 △기반 인프라 부문 조정 △주택 및 정주인프라 개발 지원 등 4개 주요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거대방과제 및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추진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임을 강조함
- AHY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들이 프라보워 정부의 전략적 성장거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회와 재무부의 예산 승인 지지를 요청하였음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자카르타 MRT 4단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여기업)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후Plenary(미정)
- (사 업 비) 12억불 (KIND Pre 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신설 및 운영
- (추진현황) *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1차 EOT 제출('24.6), 2차 EOT 제출('24.12),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주요동향) `25.7.8일 K컨소 명의로 FS 기한연장요청공문 발송후 결과 대기중
- 동시에 삼성물산 주도로 호주의 PPP 강자인 Plenary를 컨소에 초청 추진중: 4자 MOU 문구 협의중, 7월 중순 Plenary 면담 예정

②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Sinarmas - 한국투자리얼에셋자산운용
- (참여기업) LG CNS (해외건설사업자)
- (사 업 비) 약 3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꾸닝안 지역에 30MW급 데이터센터 건설
- (추진현황) LG CNS와 MEP(장비설치) 계약, 현지업체(Akacet)와 시공계약 체결임박

- (주요동향) 발주처의 책임준공요구로 우리 건설사 EPC 입찰참여가 부진 (포스코E&C, GS E&C 등이 응찰후 협상불발로 철회)
- 현지업체는 시나르마스측에서 별도로 현지시공사 5개사로부터 오퍼를 취합하였으며, 공사비와 공기 측면에서 아국기업 대비 압도적 (예: 공기 아국기업 22개월+ > 현지기업 14~18개월 수준)
- LG CNS가 MEP 계약체결 예정으로 수주유발. 단 현지업체 시공사 PF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 필요

③ BSD 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Sinarmas Land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 업 비) 비공개
- (사업내용) 비공개
- (추진현황) 대우건설 Sinarmas MOU 체결('24.9.2)후 연장 (~25.9월)

- (주요동향) 시나르마스 랜드가 개발한 주요 신도시인 BSD내 대우 건설이 공동투자, 주거단지 개발 추진
 - 토지비 협상이 타결단계이나, 분양리스크 대책 및 PF 미사용으로 레버리지효과 없음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KIND에 FS(비공모) 또는 사업개발비 분담요청 예상

④ 신수도 공무원주택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삼성물산, 브란타스(현지 건설공기업 중 하나)
- (사 업 비) 약 4억불
- (사업내용) 신수도 내 공무원주택 20개 Tower, 720세대 건설, AP로 회수
- (추진현황) LOI 제출('24.12), NDA 제출('24.12)

- (주요동향) 신수도청, 신수도에 공무원 주택 60개 Tower 발주 예정
 -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Nindya Karya(주재국 건설공기업) 컨소시엄이 LOI를 제출(' 24.12)하면서 경쟁구도 형성됐으나, 신수도청은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NK컨소시엄에 각각 20개 Tower씩 LTP 발급(' 25.5)

⑤ 기타 신규/초기안건

- GS E&C 산업단지: '25.7.11 부지방문 및 재원조달 기초협의를
- 현대Eng BSD 주거단지: 년내 시나르마스와의 협력 구체화 추진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보고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수도이전 / 신수도(누산타라) 건립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현지 국영건설사 재정사업 참여중 / PPP사업 외국기업 참여 추진중
- (사 업 비) 466조 Rp
- (사업내용)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 및 수질 오염, 난개발, 교통체증, 기반침하 등의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깔리만탄섬 동부지역의 발릭파판과 사마린다 사이에 도시를 신설하여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
- (추진현황) 재정사업 위주 1단계(2022~2024) 마무리중, 2단계 추진 개시

- (주요동향) 前 조코위 대통령은 2023년 9월부터 거의 매일 이틀에 걸쳐 착공식을 직접 주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현 프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 등 우선순위 정책에 비해 관심을 보이지 않아 다소 정체되는 양상
 - 재정사업 중심의 1단계(2022~2024) 사업에 이어 2025년부터 2단계(2025~2029) 사업 추진 예정. 2단계 사업부터 민자사업 발주 예상
 - 국토교통부, 신수도 스마트센터 설립 ODA 사업('24~'26, 99억원) 지원
 - '25.6.23 사전착공회의(PCM) 정부핵심업무지구(KIPP)에서 개최

② 바탐 항나뎀 공항 확장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
- (사 업 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바탐공항 운영권 인수 및 운영 개시('22.7~'47.6)

- (주요동향) 상업시설(14개 사업권, 32개 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입찰 완료('24.1). T1 리노베이션 공사 완료 및 운영개시('24.4)
 - 현지파트너인 WIKA가 지분 19%를 매각키로 하여 KIND 참여가능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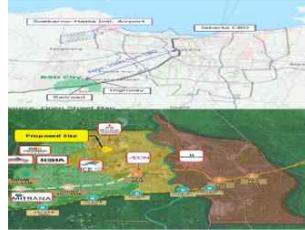
BSD City 개발사업 (대우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BSD(자카르타로부터 남서쪽 약 25km) 지역
- 사업 규모 : 약 46Ha (46만㎡)

- 사업 주 : 대우건설, 시나르마스 랜드

* 사업비, 사업 방식, 사업 기간은 현재 미정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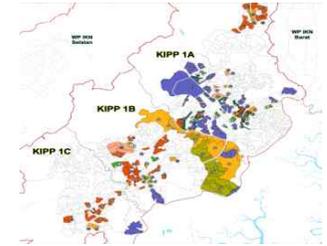
- '24. 8 : 대우건설, concept design 완료
- '24. 9 : 대우건설, 시나르마스 랜드와 MOU 체결
- '24.11 : 대우건설, 시나르마스 랜드와 Preliminary Term Sheet 체결
- '24.12 : 대우건설, 시나르마스 랜드와 토지비 협상 중
- ※ 토지 가격 협상이 잘되어 사업성 있다고 판단시 KIND F/S 신청
- '25 : 사업 협약 및 출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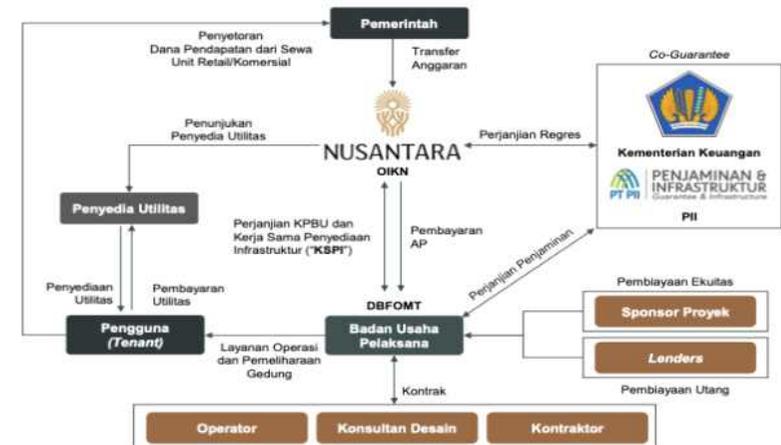
신수도 공무원 주택 PPP 사업 (삼성물산)

□ 사업개요

- 위 치 : 깔리만탄섬 신수도 예정지
- 사업 규모 : 20개 타워. 약 720세대
- 사업비 : 4억불
- 사업 방식 : PPP
- 사업 기간 : 36개월
- 사업 주 : 삼성물산, 브란타스



□ 사업구조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24.11~12 : 삼성물산 및 공사, 각각 LOI 제출 및 NDA 체결
* KIND는 신수도 이전 사업의 지연에 따라 참여를 잠정 중단
- '25.5 : 삼성물산, 신수도청으로부터 LTP 수령
- '25.2Q : FS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승인('25.下), PPP 입찰('25.11), 착공('26. 1)